

후쿠시마 현실-리포터 ② : 배상금과 피난민의 고난에 대해서

2013년 7월 13일

후쿠시마 피해자 지원자 · 찌바켄 마쓰도 주재

후쿠오카 모모코

오늘은,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잘못알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커다란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동경 전력회사의 교묘한 술책에 잘못 이해하고있는지도 모릅니다.!)

피해자는, 3.11 후, 배상금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에따라 받은 시기는 틀립니다만, 가족은 100 만엔, 독신자는 75 만엔이 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가불금으로써, 배상금의 일부의 돈으로써 지불되어진것입니다. 또 나중에 정신적인 배상금으로 매월 10 만엔이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불되어진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이것으로 살았다, 하면서 안도 하셨을것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적지않은 사람들은, 이 일시 가불금을, 정신적인 배상금을 원금으로, 돌려 받았습니다. (이것이, 동경 전력의 교묘한 술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개월 후의 일입니다. 동경 전력으로부터 정신적 보상금의 지불이야기가 정리되어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하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할것
2. 상기 신청할때, 생활 소모품, 식품은 제외할것
3. 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쓸것
4. 상기 신청 결과 심사가있으며, 인정된 금액만을 배상되어진다.
5. 따라서 인정되지않은 금액은, 동경 전력에 돌려줄것.
6. 「정신적 배상금」으로써, 별도 신청한 사람은 한사람당 매월 10 만엔이 지급되어짐.

결국 이런것입니다.

피난생활중에 많이 물건을 구입한사람에게, 100 만엔 이상 지불한 사람에게, 그 영수증을 잘 보관한 사람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않았습니다. 그 물건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 만엔을 뺀 마이너스 금액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일도 모르는 피난 생활입니다. 영수증을 전부 보관한다는것은

피난민에게 있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피난 생활중에 산 물건의 영수증 금액이 100 만엔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차액을 반환하지 않으면하고 동경 전력으로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려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매월 받아야 하는 정신적 보상금(매월 10 만엔)에서, 1 년이 걸려서 돈을 갚았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안 피해자 중에서는, 배상금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3 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동경 전력 「받을 마음없다.」라고 보아, 내년 3 월에 「기한 만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다른쪽에서는, 매달 10 만엔의 정신적 배상금 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다 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생활비에 필요한 배상금 만을 신청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아직 한번도 정신적 배상금은 받아보지 못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피해자의 자택 토지, 집, 전답의 배상에 대해서도, 생각 할수 없을 만큼 싸게 책정되어 버렸습니다. 결과, 일도, 수입도 없는 상태에 놓여진 피해자. 이 사람들은 피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난자들은, 「동경 전력(東電)의 돈으로 살아 가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매도 되어 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차를 흠집을 내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난자가 생활하는 가설 주택은, 2 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가설」의 주택에 계속해서 사는 매일 매일. 돈도 없고, 식구는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것이, 내가 아는 원전 사고 피해자의 실태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단지, 동경(東京)과 관동(關東)에 사는 사람들의 전기 때문에, 자신들의 풍부한 자연과 고향의 토지를 제공한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현실!

“이것으로 좋습니까?” 이상으로, 이번은, 배상금을 돌려싸서 내가 알게 된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 소모품 (상푸, 세제 각종...)· 식품 (쌀, 조미료, 건어물, 과자...)· 기저귀, · 종이 팬츠 (유아·어른용), 누구나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AM10 : 00 ~ PM5 : 00

FAX : 047-346-8675 휴대 전화 : 080-5547-8675 메일 : f.mom.1941@ezweb.ne.jp